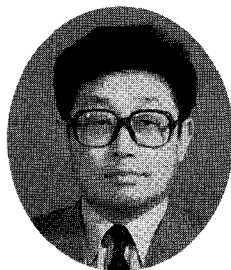


레바논산의 숲과 수난

‘문명’ 번성했던 자리, 항상 숲의 흔적 살아 숨쉬어
인간들의 이익 취할 때 마다 삼림의 자취 사라져

숲은 화석연료를 소비하지 않고서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과 산소, 탄소 등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숲의 기능은 그만큼 무공해(無公害)적이다. 이와 함께 숲은 문명(文明)을 지탱해주는 기본 단위다. 옛 문명이 번성했던 자리에는 반드시 숲의 흔적이 있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은 짙은 녹음으로 드리워져 있다. 숲이 문명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숲은 여러 모양으로 수난을 겪으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난방용으로 벌채되기도 하고 취사를 하기 위해 땔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집을 짓기 위해 목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땔감과 취사용 연료로



장재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사용되는 숲은 전 세계에서 베어내는 목재의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숲들이 훼손되고 꺾여져 지금은 많은 숲들이 자취를 감췄다.

지금은 황량한 사막지대로 알려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지금부터 수천년 전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숲의 자취를 확인하기조차도 힘들다. 인간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화가 나무들을 모두 베어 가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레바논산의 백향목(柏香木)과 같이 인간생활에게 유용하게 쓰이던 나무들은 그 수난이 더 컸다. 구약성서를 통해서 레바논(Lebanon)산 백향목 숲의 수난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역 조공품으로 역할 다한 '백향목'

백향목은 옛날에도 귀중한 자원이었다. 구약성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다. 백향목은 재질이 강하고 결이 견고하여 해상교통의 수단인 배를 건조하거나 궁전이나 성전을 짓는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던 나무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값이 비싸고 돈벌이가 잘되던 나무였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서부해안을 셈(Semite)이라는 사막민족이 점령하면서부터 백향목의 수난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들 셈민족은 후에 페니키아인(Phoenicia)이 된다.

기원전 레바논에는 울창한 백향목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래서 산악지대인 레바논은 늘 아름다웠다. 그러나 레바논은 산악 지대에 위치한 이유로 농경지가 늘 부족했고 농사짓기도 어려웠다. 농사짓기가 어려웠던 페니키아인들은 농사대신 공예 산업에 종사하게 된다. 유리제품이나 염료, 직물, 사기그릇을 만들어 그것을 외국에 내다 팔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레바논의 지중해 연안에는 두로(Tyre)나 시돈(Sidon)과 같은 항구가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항구는 서남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물품을 거래하는 중요한 무역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 항구를 떠난 무역선(貿易船)은 지중해를 지나 아프리카의 서부와 영국에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레바논의 백향목도 페니키아인들의 중요한 무역품의 하나가 된다. 결국 페니키아인들은 국

제무역항인 두로와 시돈항을 통해 레바논산의 풍부한 백향목을 벌목하여 이집트와 유럽 각국에 팔았던 것이다.

문헌으로 보면 백향목 무역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된 듯하다. 레바논 백향목을 가장 먼저 수입한 사람들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었다. 기원전 2600년 전에 씌여진 파라오 스네프루 때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집트항에는 배와 궁전의 문을 만들기 위해 백향목을 가득 실은 배들이 40척이나 입항했다고 한다. 그후 2000년 동안 이집트는 페니키아의 패권을 장악할 때마다 교역품으로든 조공품으로든 백향목을 이집트로 실어갔다. 또 기원전 1100년경에는 그 당시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앗시리아(Assyria)인들이 신전과 궁전을 짓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많은 백향목을 진상토록 요구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후에도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계속해서 백향목을 조공(租貢)으로 받아갔으며 백향목 통나무를 직접 유프라테스강까지 운반하여 자기나라에 띄워보냈다.

기원전 950년경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건설된다. 그리고 솔로몬(Solomon)은 다윗에 이어 두 번째 왕이 된다. 솔로몬은 왕권을 확립한 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왕 히람(Hiram)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원조를 청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

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샅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든사람 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와같이 솔로몬은 성전건축을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간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히람의 승낙을 얻어낸다. 성전을 짓는 데 쓰일 재목을 운반하기 위해 예루살렘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교대로 레바논을 왕래하게 된다. 솔로몬 왕은 그 답례로 식량이 부족한 두로왕 히람에게 125,000부셀의 밀과 100만겔론의 올리브유를 보내준다. 이밖에도 구약성서에는 레바논의 백향

목을 고갈시키게 된 이유를 밝히는 기록들이 얼마든지 나온다. 기원전 6세기의 바빌로니

아왕 느부갓네살 역시 자기 왕국을 위해 훌륭한 백향목들을 마구 베어가고 그 업적을 기록한 비문을 레바논산에 남겨놓는다. 느부갓네살왕은 비명을 남길 정도로 많은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베어 갔던 것이다.

인류문화 바꾼 '백향목의 파멸'

기원후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많은 수난을 겪는다. 기원후 700년경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여 통치를 시작하면서 레바논산은 다시한번 벌거 벗겨지게 된다. 이 지역에 살던 많은 이교도(異教徒)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레바논산으로 이주하면서 많은 염소떼들을 함께 데려갔기 때문이다. 레바논산으로

이주한 이교도의 염소 방목으로 레바논산은 결국 황폐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세이후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작과 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지중해 연안에는 숯을 굽는 숯공과 숯을 파는 상인들이 성행하게 된다. 결국 레바논산의 나무들이 숯으로 만들어져 다마스쿠스(Damascus)나 트리폴리(Tripoli)에 내다 팔리게 되면서 레바논산의 숲은 다시 한번 수난을 겪는다. 근세에 들어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타민족인 영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부터 레바논산의 숲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영국은 트리폴리와 하이파(Hifa)를 잇는 철도를 부설할 계획을 세우고

철로 밑에 깔 침목(枕木)을 구하기 위해 레바논산으로 눈을 돌려 레바논산의 서북쪽에서 많은 참나무와 전나무를 벌

목하여 침목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

이와같이 레바논은 한때 백향목이 울창한 지역이었다. 특히 레바논의 분수령인 레바논산은 한 때 우뚝우뚝 솟은 백향목의 밀림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백향목이 자라지 않는 산비탈에도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 등으로 삼림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레바논산은 삼림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마구 베어버렸기 때문이다. 레바논에서의 백향목의 파멸은 결국 인류문화를 크게 바꿔놓는 계기가 된다. 한때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사막지대로 변해버린 것이다. **농약정보**

